

전도는 사랑이다

누군가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치유가
될 수 있을까?

다음 페이지



그 사람은, 자발적으로 고통을 선택했습니다.

(벤전2:24), (갈3:13)

살면서 누구나 마음에 남는 상처가 있죠.

때론, 누군가의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가
그 상처를 조금 덜어주기도 해요.

그리고 아주 오래 전,
누군가 그런 선택을 했어요.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의 회복이 되기를 바라며.
잘못이 없는데도, 모든 무게를 짊어졌어요.

그가 선택한 길은 힘과 복수가 아닌 용서와
사랑이었어요.

그 고통은
누군가에겐 용서가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마음의 평화가 되었죠.



그의 선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죽음을 맞았지만,
그 죽음은 절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 고린도후서 5:14, 17)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예요.



누군가는 그를 신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그냥 위대한 사람이라 불러요.

중요한 건
그가 사랑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예요.

그 사랑은 종교를 넘어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말을 건넵니다.

“괜찮아,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요한복음 3:16)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복잡한 인생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아도,

누군가는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보고 있어요.

그가 했던 그 사랑,
지금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 요한복음 1:12



2025후반기
동부선린교회
사랑의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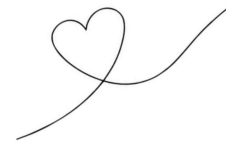
당·신·을·초·대·합·니·다

WELCOME · GOD BLESS YOU



2025년 10월 26일(주일) 오전 11시
동부선린교회 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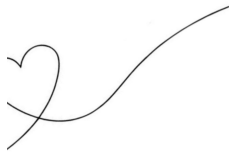
태신자를 위한 블레싱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에 초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품은 전도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행16:14),
복음을 들을 때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시며(요16:8),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롬10:9)
죄 사함의 새생명을 얻게 하소서.

그들의 두려움과 상처를 싸매시고,
거짓과 어둠의 속임에서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는 지혜와 담대함과 온유를 주시고,
적절한 때와 말과 기회를 열어 주셔서 사랑으로 초대하게 하소서.



작은 우리의 초대가 하늘의 큰 잔치로 이어지게 하시고
이번 "사랑의 초대"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세례와 사랑 안에 연결되어 말씀과 기도로 자라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기독교장로회
동부선린교회

담임목사 곽 선 근

천현성전 | 12956 하남시 하남대로654번길 22-10
새능성전 | 13025 하남시 산곡동로86번길 42
사무실 031)793-3179 팩스 031)793-3172
www.dbsunlin.com



홈페이지

www.dbsunlin.com



YouTube

동부선린교회

검색



유튜브